

병원까지 빨라야 3시간…전남 25개 ‘먼섬’ 정주여건 ‘최악’

섬진흥원 국토외곽 먼섬 연구 보고서

기초생활서비스 육지보다 1시간 더 걸려

보건의료·복지 만족도 33.4% 그쳐 최저

가거도·흑산도 등 전남지역 25개 먼섬의 정주여건이 최악인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먼섬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이 일반 농어촌 지역에 비해 6배 가량 뒤쳐져 있는 데다, 의료 접근 역시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에도 3시간 가량 소요되는 등 정주여건 만족도가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25일 발간한 ‘키디 이슈앤브리프(KIDI ISSUE & BRIEF)’를 통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이번 연구는 한국섬진흥원·국토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 영해기선(지선기선)이 되는 섬 등 국내 43개 섬의 현황을 집중 조망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먼섬은 총 25개다. 신안이 11개(홍도·대흑산도·가거도·영산도·장도·만재도·상태도·중태도·하태도·대둔도·다불도)로 가장 많고 진도 6개(죽도·과도·맹글도·동거차도·서거차도·상하죽도), 영광 4개(죽도·안마도·대석만도·횡도), 여수 3개(거문도·동도·서도), 완도 1개(여서도) 등이다.

해당 섬들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대상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섬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 및 도달 시간은 육지에 비해 최소 1시간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와 편차 뿐만 아니라, 먼섬은 편차도 확인됐으며 섬별로 기반시설(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먼섬에 사는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50% 이하를 맴돌면서 국가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실제 보건의료·복지 만족도가 가장 낮은 33.4%를 기록했다. 이어 주민 대피·재난 대응(35.2%), 소득·일자리(35.6%), 환경·관광자원(38.3%), 출산·보육·교육(39.0%), 주거·생활 서비스(40.8%), 교통·접근성(44.6%) 순이다.

먼섬은 육지나 일반 섬에 비해 고령화율이나 1인 가구 비율이 현저히 높은 만큼 응급의료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한국섬진흥원의 분석이다.

한국섬진흥원은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주민 정주 기반 조성·삶의 질 향상, 접근성 개선·기본권 확보, 국경 수비·해양영토 수호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섬진흥원 연구진은 “국토외곽 먼섬은 기상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 높은 이동 비용, 공공서비스 이용 제약,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접근의 실질적 공백 상태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섬별·분야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동구 확대간부회의서 주요사항 점검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25일 상황실에서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업무 주

진 사항 보고를 진행했다.

〈광주동구 제공〉

“대조기 침수 피해 막아라” 사전 대응 총력

전남도, 현장순찰·사전대피 집중점검

전남도가 대조기 해안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대조기(25-27일)를 맞아 연안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 침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24일 침수 피해 예방·대응 대책 회의를 열어 시·군, 소방본부와 함께 조수재난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는 전남도 해안항만과, 자연재난과, 복

의재난·해양업무 담당 과장이 참석, 기상 전망과 과거 피해 사례 공유, 중점 관리사항 설정, 대처 계획 및 현장 대응 방향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대조기 기간 목포시와 진도군이 해안 침수 고조 ‘주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보된 만큼 해수면 높이 단계별 조치 계획에 따라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사전 대피, 배수시설 점검, 선박 결속 등 세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대조기 침수는 짧은

/김재정 기자

시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피와 현장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해안가 저지대와 항·포구, 선착장 등 침수 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일괄 전 사전 대피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실시간 조위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 경계구역을 정하고 마을방송과 안내문자 등을 통해 주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침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정 기자

10월 국제농업박람회서 아열대채소 선보인다

신소득 작목 발굴 미래농업 전시 관심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5일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 기후변화 시대 유망 작물로 주목받는 ‘아열대채소 전시시장’(사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농가의 신소득작목 발굴과 기능성 채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장은 박람회장 내 전남도 전시관 일원에 조성되며 관람객과 농업인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주요 전시 작물은 베이비배추, 여주, 땅콩호박, 공심채, 차요태 등 건강 기능성이 뛰어난 아열대 채소다. 이들 작물은 향산화 성분과 혈당 조절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최근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바닐라, 올리브 등 이색 열대식물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불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민영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연구사는 “기후 변화로 국내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 가능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아열대채소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형 작목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입니다.